

직장인 건강검진 믿을 것 못될까?

편집실

그 로기준법에 피고용자는 매년 혹은 2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마다 일정수준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직장인과 공무원 및 근로자, 의료보험 성인병검진 대상자들은 건강검진이 너무 형식적이고, 검사항목도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은 검진을 받으라고 하니 할 수 없이 받는 것이지, 자신은 따로 종합검진을 받고 있다고 하기도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검사항목은 신장과 체중을 비교하여 비만도를 측정하고, 혈압, 시력, 청력검사를 비롯한 의사의 진찰과 흉부 엑스선 검사, 빈혈검사, 간기능검사(GOT, GPT, GGT), 혈당 및 콜레스테롤, 빈혈검사, 요당 및 요단백검사, 그리고 기혼 여성은 자궁경부암검사 등이다.

이것은 비록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이다. 즉 건강검진으로 빈혈, 폐결핵,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을 조기발견할 수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간암과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위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대장암 등이 빠져 있지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제외된 암검진도 저렴한 비용으로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직장에서는 피고용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고용주가 추가로 부담하여 이러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도 있다.

문제는 검사에 대한 신뢰도이다. 건강검진을 진정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많은 대상자들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어떤 검사기관에서 시행한 검사가 신뢰성이 있으려면 그 검사기관은 더 권위가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계속해서 검사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정도관리'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의료기관이 모두 이런 수준의 정도관리를 받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전문기관은 외부 정도관리 혹은 자체적인 정도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검진한 내용을 무조건 불신할 이유는 없다.

물론 검사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실제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검사결과는 이상이 있다고 나왔지만 정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은 검진기관의 잘못보다는 정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검사의 오차나 개인의 차이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은 건강검진의 결과대로 따르면 되고, 기타 어떤 증상이 있거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소화장애가 있거나 혹은 감염보균자인 경우에는 따로 의사를 찾아 건강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정진**

- 인의협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중에서 -